

논단 / 자료

대출통계로 본 대학생의 독서경향에 관한 연구

- 1998-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 빈도를 중심으로 -

권 광 희

(수서정리과 국내서 목록 담당)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독서의 정의 및 중요성
 - 1) 독서의 정의
 - 2) 독서의 중요성
2. 독서지도의 의의

제3장 대학도서관 현황

1. 대학도서관의 역할
2. 대학생의 독서 활동 및 독서 진흥책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현황

제4장 대출 빈도로 본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경향

1. 분야별 선호도
2. 주제별 대출빈도
3. 서울대학교 학부생에게 최다 대출된 도서들의 분석
4. 서울대 선정 교양필독서 200선과의 비교
5.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의 도서와의 관계
6. 베스트셀러와의 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인류 역사상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가 달리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이 시대를 탈산업화 시대, 지식산업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라 부른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속동 111 0061494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주의가 아닌 개성의 존중과 개인의 창의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고력 증진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그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 학문탐구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은 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수용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문 탐구를 본령으로 하는 대학생은 전공학문의 영역은 물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 품성함양은 필수적이다.

보다 높은 지적 세계를 지향해야만 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 영역만이 아니라 기초적 교양 형성을 위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생의 독서는 전공 교육면에서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평생토록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전공과 교양서적의 독서에 몰입해야 하는 대학생으로서의 여건으로 볼 때, 일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서의 독서보다 생활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대학생 독서지도를 생각해 본다면 대학생의 독서 경향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독서지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대학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시스템을 이용, 대학생의 대출 빈도가 높은 도서들을 중심으로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생의 독서 경향을 파악해 보는 한편,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독서의 정의 및 중요성

1) 독서의 정의

독서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를 기호화한 것을 독자의 의식에 재생하는데 있어 읽을 내용, 독자의 지식, 생리적 활동의 세 가지 면이 서로 상호작용

용하며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말한다.

독서에 대한 정의는 ‘문자를 읽거나 문장, 글을 읽는다’는 가벼운 개념에서부터 ‘필자의 기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뇌리에 재생되어 다시 형성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독서자료, 독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독자의 생리적·지적 활동이 상호작용 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좁은 개념의 독서는 단순히 책을 본다거나 읽는다는 것이다.

넓은 개념의 독서는 책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와 나아가 문화, 사회 및 자연의 환경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전략적 사고과정인 것이다.

독서의 구체적인 과정은 독자가 낱말, 문장, 문단, 글 등을 읽을 때, 그 읽은 내용에 대해 독자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복합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동시에 일련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이해되는 때마다 취사선택하여 통합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지속되고, 불분명한 ‘의미’가 차차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글의 끝부분을 읽을 때 비로소 글 전체의 의미를 휩쓸어 파악하게 된다.

즉 독서는 언어기호의 의미가 글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독자의 뇌리에 자극을 주는 독서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석, 종합, 정리, 추출하는 사고 능력을 통하여 의미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데서 일어나는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지식, 정보, 연구, 조사, 영감, 오락의 자료원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논리적, 비판적, 능동적, 전략적, 창조적 사고 과정인 것이다.

김병원¹⁾은 ‘독서는 글을 매체로 하여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미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인간 두뇌의 복잡한 언어사고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Harris²⁾는 ‘독서는 인쇄된 자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위다. 인쇄된 필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상을 읽을 자료, 독자의 지식, 독서력 등 세 가지 기초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독자의 마음속에 깊이 재구성하는 과정, 즉 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체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1) 김병원, 독서론, 서울:배영사, 1978, p.7.

2) Harris, A. J.,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New York:Longmans & Green, 1956, p.153.

Strang³⁾은 ‘독서는 낱말을 명확하게 보는 것, 인쇄된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는 것, 분리된 낱말들의 의미를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는 성인 군자 학자와의 대화의 수단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2) 독서의 중요성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며 좁은 교제의 범주 안에서 몇 사람의 친구들과 이야기 할 뿐이어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신변의 사소한 이야기뿐이다.

그러나 독서를 통하여 넓은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나 미경험의 세계를 찾는 길잡이가 되어 폭 넓고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삶에 자신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큰 힘을 가지게 된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연구자는 한 권의 교과서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더 넓은 시야를 확충해가야 한다.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서가 아니면 시간적, 경제적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매일 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독서를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서를 통하여 교양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외에도 정서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사고력을 길러 창의성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독서의 중요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창조적 사고’란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이며 문제를 의식하여 생각 끝에 그 문제에 대결하는 어떤 결정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 사고란 비판적인 생각 없이 수용하는 기계적인 사고와는 달리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사고는 모든 지적인 능력을 두루 망라한 것으로 고도 사고의 차원

3) Strang, Ruth McCallough, Constance, M. and Traxler Arthur E.,
Problems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 New York:McGraw-Hill, 1955, p.287.

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독서는 좋은 사고를 요구하며 성공적인 독서에는 반드시 좋은 사고가 수반되므로 좋은 사고, 즉 창조적 사고를 떠나서는 좋은 독서를 기대할 수 없다.

2. 독서지도의 의의

독서지도란 넓은 뜻으로는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이라는 의미로 독서교육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좁은 뜻으로는 독서교육의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형성을 위한 독서기술, 독서위생, 독서후의 지도를 말한다.

교육이라는 개념을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듯이 독서 지도의 의의 역시 여러 각도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즉 독서지도를 일반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각 개인이 자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도서자료를 매개체로 하여 자기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으로 적응된 독서, 인격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원조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독서에 의한 생활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독서로 건전하고 충실히 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독서력과 독서에 의한 인간 형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16~17세기에 학문 방법의 대혁신을 일으킨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며, 대답은 기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며, 글을 쓰는 것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다.⁴⁾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독서에서 배우고,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른 폭 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다변화 사회에서는 폭 넓은 지식의 소유가 더욱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⁵⁾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활과 유리된 관념상태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생활과 일치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손정빈, “대학생과 독서”, 생활지도 안내서4, 경북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1979.

5) 손정빈, 같은책, p.11.

제3장 대학도서관 현황

1. 대학도서관의 역할

우리나라 교육법 제108조에 “대학교육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도서관은 바로 그와 같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속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적 교육기관이요 학술정보센터인 것이다.⁶⁾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 부과된 사명인 학술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필요한 도서 및 그 외의 자료나 정보들을 수집하며, 교육과 연구에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들을 유의적, 자율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교육기관이다.”⁷⁾ 즉 대학의 교수기능과 연구조사 기능, 학생들의 수업, 교양 및 학구적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 보존하여 이를 널리 활용하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대학교육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일찍이 하버드대학 도서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필 벅(Paul Buck)은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요, 훌륭한 대학교육은 질적으로 훌륭한 도서관 없이는 불가능하며, 유능한 교수진의 확보도 기대난이다”라고 설파하였다.⁸⁾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수기능과 연구, 조사기능을 도우며 학생들의 자율학습 및 지적, 정서적, 문화적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해 주는 학문의 위대한 요람이요, 진리탐구의 중심적 기관이다.

마치 차륜의 중심축과 같은 구실을 담당하여 그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키고,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효과적 교수기능, 창조적 연구기능, 훌륭한 봉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적, 정보적, 학술적, 교양적 자료를 수집, 조직, 축적, 검색, 제공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대학도서관의 의의와 중요성이 존재한다.⁹⁾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은 학내의 교육과 조사·연구를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6) 박정길 저, “도서관·문헌이용법”, 부산:경성대학교 출판부 1995. p.73.

7) 小野泰博 等著, “圖書館學通論”, 現代圖書館學講座 1, 東京, 東京書籍, 1983. p.53, 재인용.

8) 박정길 저, 같은책 p.73.

9) 박정길 저, 같은책 p.74.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정보접근 방법의 변화, 발전된 정보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매체의 제작·보급 등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 변화가 일고 있다. 김형각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¹⁰⁾

첫째, 장서 및 장서개발상의 변화이다.

정보기술은 접근봉사 개념의 대두, 정보매체의 다양화, 수서 및 선택업무의 효율화, 협동장서개발의 촉진 등 장서 및 장서개발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적요인과 기술적 진보 및 이용자의 정보요구 증가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환경 즉 어느 도서관도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대한 망라적 장서에 대한 추구를 대체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단순히 인쇄매체로 구성되어지는 정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 이용자 요구의 변화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장서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접근성의 향상은 장서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소장 자료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비소장 자료에 대한 탐색과 추적이 용이해짐에 따라 비소장 자료의 구입 및 상호대차 등을 이용한 원문입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생존전략으로서 평생학습이 보다 일반화되고 학문이 세분화됨에 따라 정보의 양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요구의 변화로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여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원 및 상이한 형태의 정보매체에 수록된 정보를 통합, 정보에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대학도서관 문화 및 조직구조의 변화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교수 및 학습형태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문화 및 조직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웹 기반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도서관 기능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학도서관 조직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대학도서관 이용방법 및 독서환경 조성의 변화이다. 대학도서관은 독서 자

10) 김형각, “지식기반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1집’, 2003. pp.30-33.

료들을 선택하여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므로 독서 인구 개발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상과 같이 김형각은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1집, 지식기반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에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대학도서관은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풍부한 독서 자료를 제공해 주며, 의욕적인 독서 활동이 전개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또한 무한한 지식의 세계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올바른 도서관 이용 방법과 함께 독서방법, 기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독서 활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은 현재 독서 교육 기능의 구심체로서 모든 독서 환경을 조성, 변신에 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학생의 독서활동 및 독서진흥책

대학생과 독서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언급되었거나 논의된 사항이다. 독서라는 노작을 통하여 인간은 지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자아성숙과 인격형성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늘 강조되며 권장되어 왔다.

대학시절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교양과 지적능력을 함양하고 창조적 정신문화 발달의 기수가 되기 위한 인식이라는 것과 자신의 내적 세계를 확충해 나가는데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생의 독서계획」(The Lifetime Reading Plan)의 저자 클리프턴 파디먼(Clifton Fadman)은 ‘인생의 꽃은 대학시절이다.

왜냐하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시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독서는 자기완성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임을 대학생이라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¹¹⁾

엄밀한 의미에서 독서는 취미가 아닌 대학생의 일상적 행위이며 인간 교육의 필수요건이요 자아성장을 위한 최선의 도구이며, 독서를 통한, 자기교육(Self education)이다.¹²⁾

그러면 대학생의 필수요건인 대학생의 독서를 위한 독서진흥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는 것처럼 독서지도 역시 독서를 통한 올바른 인격형성을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박정길, “도서관·문헌이용법”, 부산:경성대학교출판부, 1995. pp.347-348.

12) 중앙대학교 도서관 편, “大學生活과 圖書館”, 중앙대학교, 1993.

그러나 대학생의 독서에 대한 폭과 깊이는 우려할 정도로 좁고 얕으며, 창의적 발상과 상상력 종합적 사고력을 지닌 대학생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

이렇게 대학생의 독서 수준을 부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양서를 읽게끔 자극을 주어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 교양과 지적능력을 함양하고 창조적 정신문화 발달의 기수가 되기 위한 독서 진흥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고전이나 양서를 읽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선정한 「동서고전 200선」과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등 고전 읽기 독서 권장책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와 조건 관계로 거의 교과서 범위 내에 머물고 있어 관련 자료나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폭넓고 다양한 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 위주이며 토의식 학습, 과제중심 학습, 탐구 학습, 완전학습과 같은 지도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¹³⁾

구태 의연한 자세로 안이하게 실행하여 온 낡은 학습지도 및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 전달에만 치중하는 학습지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를 통한 사고능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이는 현명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문제 해결력과 행위적인 변화를¹⁴⁾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단위 일변도 학습과 같은 교수, 학습방법을 지양하는 대학 자체내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일부 대학들이 「독서학점부과제도」¹⁵⁾를 도입하여 의도적으로 독서를 실행케 하는 교육방침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독서 진흥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넷째,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강조되는 ‘평생교육’이니 ‘계속교육’이니 ‘추후교육’도 그 참뜻은 결국 학교 졸업 후 사회활동이나 직업 활동에 있다.

이는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습득, 활용함으로써 급변

13) 박정길, “도서관·문헌이용법”, 부산:경성대학교 출판부, 1995.

14) 김재구, “교재연구와 수업의 실제”, 서울:현대교육사, 1970. p.24.

15) 부산여자대학이 1979년부터, 동아대학교는 1982년부터 실시함.

하는 사회와 가속적으로 발전 변화해 가는 시대적 추세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현황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견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외국의 이론 및 기술을 도입하여 전달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여왔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들이 중견인력의 양성과 외국 이론 및 기술의 도입·전달기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초이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고급 두뇌를 자력 생산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새로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이러한 선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연구 및 교육여건이 현저하게 앞서 있는 소수의 대학들은 연구개발과 고급두뇌 양성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여타의 대학들은 중견인력의 양성과 이론 및 기술의 보급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학들간의 기능분화를 통한 특성화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계획 (1987-2001)”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를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 (서울대학교 1987. 3)임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역할과 현재의 여건 및 가까운 장래의 전망으로 보아 서울대학교는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고급두뇌 양성의 선도적 기능을 자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변화를 선 보이고 있다.¹⁶⁾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① 창조적 학문연구를 통하여 이론 및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의 타대학에게 주체성 있는 교육소재를 제공하고 외국에 학문적 의존성을 극복하며 ② 대학원과정 교육의 충실화를 통하여 교수 및 연구 요원을 양성·제공함으로써 박사급 고급두뇌를 포함한 고급인력의 자력 공급 비율을 높이며 ③ 사회봉사적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정책 및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④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계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발전 및 기술향상을 추진하게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대학원중심 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발전장기계획 (1987-2001)”, 서울:서울대학교, 1987.

도서관은 또한 대학원 교육과 전문적 연구활동의 수행을 일차적 기능으로 하는 모기관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목표를 연구중심 대학의 학술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앙도서관, 의학분관, 농학분관, 법학분관, 사회대분관, 경영대분관과 더불어 중앙도서관은 주로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분관은 교수와 대학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학문 영역별로 전문화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 전산화는 학술정보의 폭주로 수작업 체제의 한계, 예산 및 인력 절감의 필요, 이용자 서비스의 편리성 추구 및 다양화 적극적인 서비스, 학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국제적인 전산화, 학술정보의 전산매체 증가로 수용의 필요성, 학술정보의 전국 공유체계를 위한 교두보 마련, 대학의 심장 기능 제고,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 활동과 정신적 자원의 밑거름인 교양학습 기능의 강화, 전국 공립대학의 공동 중복업무의 감소, 학술정보의 표준화의 필요로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1995년 2월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인 SOLARS가 가동되었으며 2003년 8월에는 SOLARS II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오늘의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인 SOLARS II는 검색도구로서 목록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목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SOLARS II는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시스템, 효율적으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수서시스템, 연속간행물에 대한 구입 및 정리를 용이하게 지원해주는 연속간행물시스템, 서고에 납고된 자료들의 관리를 지원하는 장서관리시스템, 신착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시스템, 이용자들의 용이한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이용자서비스시스템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자료의 입수에서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인 SOLARS II의 대출시스템은 도서관 업무 중에서 이용자 열람 서비스를 관할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고 치밀한 데

이터를 요구하고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및 자료실의 전반 업무규정에 대한 정의와 대출시 필요한 대출권수 및 기간이나 연기에 대한 규정, 연체에 따른 벌칙 등 다양한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료의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학사와도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

대출시스템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출업무 및 관련 서비스 기능을 자동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서 및 도서관 직원의 자료관리 및 대출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출시스템은 대출, 반납, 연장, 예약, 벌금, 조회 등의 기능 및 각종 통계 및 양식 출력, 일괄처리, 환경 설정 등으로 구성되며 토털시스템으로 각 관련 업무간의 유기적 상호 연관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출력되는 각종 통계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일일 발생된 대출업무 각각의 업무처리 건수를 집계하는 일일 업무현황, 시간별 대출통계, 자료실별 대출·반납 통계, 주제별 대출·반납통계, 신분별·요일별 대출·반납통계, 신분별 대출·반납통계, 자료실별 대출 중 통계, 연체료 현황, 연체도서 현황, 제재미납리스트, 분실/훼손 처리 중 도서목록, 지정도서 추천 의뢰서 등 다양한 보고서 및 통계 등이 출력되어 도서관 경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4장 대출빈도로 본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경향

1. 분야별 선호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각 연도별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인 SOLARS II, 대출시스템의 대출 통계로 대출 빈도수 상위 200종을 선정하였다. 이들 200종으로 학부생의 분야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두 가지 방법이란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분류법에 의한 주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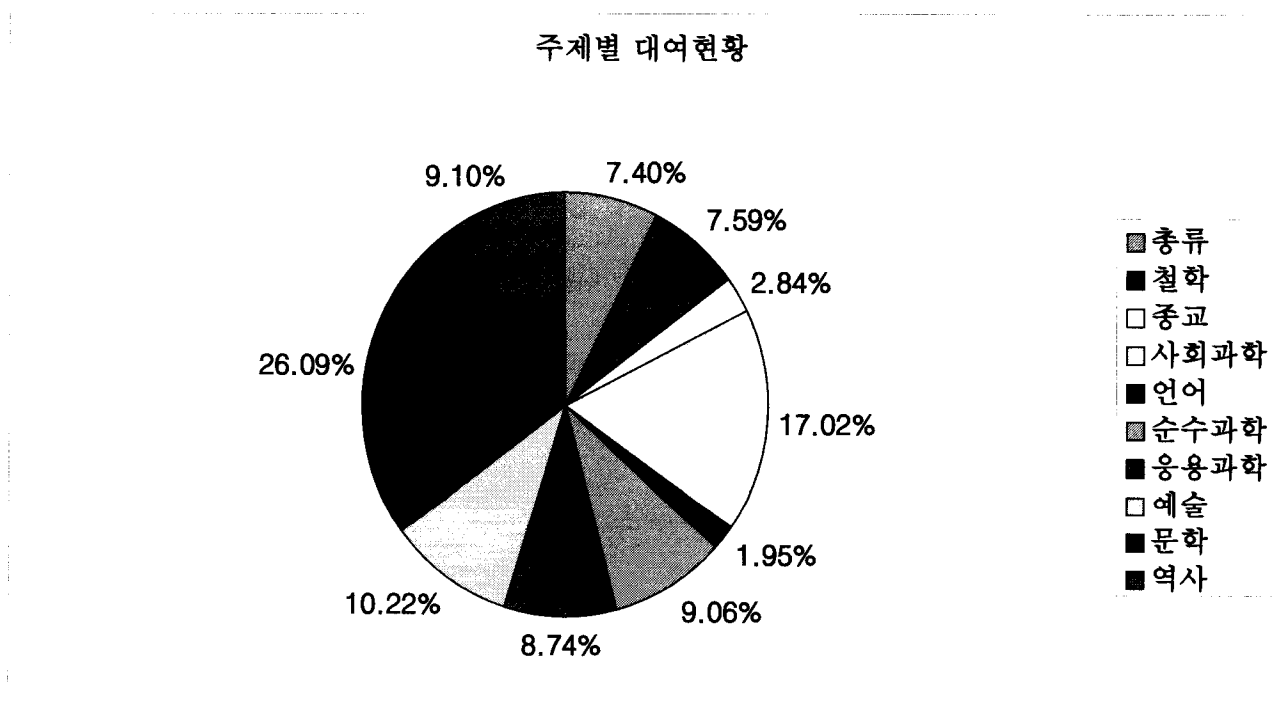
대출 빈도와 문학도서 분야, 교양도서 분야, 실용·취미도서분야, 만화 및 무협지등 4개 분야에 의한 주제별 대출 빈도에 의한 방법이다.

1)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분류법에 의한 주제별 대출 빈도

도서관 자료들의 주제별 분류법인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주제별 분류법에 따른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학, 역사로 분류하여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주제별 분야별에 따른 대출통계를 조사·분석해 보았다.

도서관 자료들의 주제별 분류법인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에 의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에 의한 선호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학부생의 DDC 주제별 분류에 의한 주제별 대출 빈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주제 분류표에 의한 주제별로 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알아보면 문학 분야 26.09%, 사회과학 분야 17.02%, 예술 분야 10.22%, 역사 분야 9.10%, 순수과학 분야 9.06%, 응용과학 분야 8.74%, 철학 분야 7.59%, 총류 분야 7.40%, 종교 분야 2.84%, 언어 분야 1.95%로 나타났다.

문학분야의 대출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제별 대출 빈도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도서의 분야를 4개 분야로 ① 시, 소설, 수필을 포함하는 문학도서 분야로, ② 역사/지리, 과학/기술, 정치/경제, 종교/예술을 포함하는 교양도서 분야로, ③ 연예/오락, 취미/스포츠, 컴퓨터, 건강/다이어트 등을 포함하는 실용·취미도서 분야로, ④ 만화·무협지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

4개 분야에 의한 주제별 대출 빈도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에 의한 선호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5년간 매년도 200종에 대한 학부생의 4개 분야에 의한 주제별 대출 빈도

(단위 : %)

도서분야 대출 선호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문학도서	58	45	46	41	40
교양도서	21	27	31	35	34
실용/취미도서	8	11	3	3	4
만화/무협지	13	17	20	21	21

4개의 주제별 분류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분야별 대출 빈도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1998년에는 문학도서가 58%, 교양도서가 21%, 실용·취미도서가 8%, 만화·무협지가 13% 차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문학도서가 45%, 교양도서가 27%, 실용·취미도서가 11%, 만화·무협지가 17% 이었다.

2000년에는 문학도서가 46%, 교양도서가 31%, 실용·취미도서가 3%, 만화·무협지가 20% 였으며, 또 2001년에는 문학도서가 41%, 교양도서가 35%, 실용·취미도서가 3%, 만화·무협지가 21% 였으며, 2002년에는 문학도서가 40%, 교양도서가 34%, 실용·취미도서가 4%, 만화·무협지가 21%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된 도서들의 빈도로 독서 경향을 알아본 결과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문학도서였다.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문학도서의 일부분이면서도 이 연구에서는 만화·무협지로 구분되는 분야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5년간 대출통계에 의한 대출 도서들의 분야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문학도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도서 대여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무협지소설과 만화의 지속적인 증가동향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무협지 및 판타지소설 대출이 1998년도에 비해 2002년도의 갑작스런 증가 추세를 보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협지 및 판타지 소설이 여과 없이 구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그 규모의 대소 여부를 차치하고, 수서정책이나 방침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대학 도서관이 되려면 대학의 교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적합한 도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적합성을 유지하는 원리란 도서선택이 신중하여야 하고 선택에 분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명확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⁷⁾

수서정책 수립에는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예산범위, 학과수, 학생과 교수의 수, 현 장서규모, 대학의 발전계획, 각 부설연구소의 연구내용 등이 영향을 끼치며 그 정책의 수정, 개선, 보완은 대학자체의 교육적 환경의 변화, 자료이용 및 이용자 요구의 내용, 참고질문의 내용분석, 현 장서의 주제별 내용분석, 장서개발방향의 설정 등에 따라 수시로 행해져야 한다.

자료선택 업무는 여러 조건과 기준, 각종 변수에 의해 부단히 검토,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까다롭고 신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한 목적과 방침, 전문적이고도 다양한 경험적 기술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기술적 기법을 필요로 한다.

선택정책, 자료수집 방침, 또는 수서계획이라 일컬어지는 수서정책은 장서 개발면에서 도서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수서계획은 교수들과 도서관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들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계획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무협지소설이나 만화의 증가는 대학생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는 딱딱한 전공분야로부터 일탈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서울대학교라는 대학생 집단으로서 사회 발전의 중심 세력의 구실을 수행하고, 앞으로 수행하려고

17) Gelfand, M. 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68. pp.64-65.

하는 대학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올바른 독서지도, 독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도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위한 진흥책을 언급하였지만 대학생의 바른 독서지도, 바른 독서환경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학 당국과 도서관의 정책적, 제도적인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위한 진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만화 및 무협지·판타지소설의 급증을 우려하는 이유는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는 만화 및 무협지·판타지소설의 역할보다는 문학도서 및 고전 교양도서의 역할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2>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 상위 도서 30위까지의 리스트(list)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의 토털시스템인 SOLRAS II의 대출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된 리스트(list)이다.

<표 2>에 의해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주제별 선호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별 분류법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주제 분류에 의한 주제별 선호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문학분야 82%, 역사분야 15%, 사회과학 분야 3%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밖의 주제분야 즉 총류, 철학, 종교, 언어, 예술,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는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문학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독서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통계에 의한 최다 대출빈도의 문학도서는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아리랑”, “이문열의 변경”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는, 도서의 분야를 4개 분야 즉 문학도서, 교양도서, 실용·취미도서, 만화·무협지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문학도서 32%, 교양도서 18%, 만화·무협지가 50%로 조사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통계에 의한 최다 대출빈도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학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분야 최다 대출도서의 공통점은 1980년대에 와서야 소설에서 큰 흐름으로 등장하게 된 대하소설이라는 점이다.

이들 작품들은 또한 계몽적인 열정, 리얼리즘,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굵직한 전통을 형성한 한국 문학 작품들이다.

3. 서울대학교 학부생에게 최다 대출된 도서들의 분석

〈표 2〉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5년간 대출도서 30위 리스트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대출횟수
1	토지:박경리 대하 소설	박경리	솔	1993	976
2	아리랑:조정래 대하소설	조정래	해냄	1994	931
3	토쿠가와 이에야스	Yamaoka, So hachi	솔	2000	884
4	(SF 대망)은하영웅전설	Tanaka, Yoshiki	엘지서적	1993	749
5	(소설)영웅문	Chin, Yung	고려원	1987	730
6	드래곤라자	이영도	황금가지	1998	719
7	바람의 마도사	김근우	무당미디어	1997	643
8	大望	Yamaoka, So hachi	중앙출판사	1998	541
9	왜란종결자	이우혁	들녘	1998	540
10	마계마인전	Mizuno, Ryo	들녘	1995	538
11	로마인 이야기	Shiono, Nanami	한길사	1995	526
12	변경	이문열	문학과지성사	1998	522
13	탐그루:김상현환타지장편소설	김상현	명상	1998	512
14	람세스	Jacq, christian	문학동네	1997	498
15	태백산맥	조정래	해냄	1995	495
16	三國志	Lo, Kuan-chung	대산출판사	1997	490
17	이문열 세계명작산책	이문열	살림	2001	483
18	아루스란 戰記	Tanaka, Yoshiki	엘지서적	1994	470
19	용의 신전	김예리	자음과모음	1998	436
20	도스토예프스끼 전집	Dostoyevsky, Fyodor	열린책들	2000	418
21	인물과 사상	강준만	개마고원	1997	378
22	(소설)명황성	Liang, Yu-sheng	고려원	1992	367
23	한국사	강만길	한길사	1994	365
24	(만화)십팔사략	고우영	고려문화사	1995	363
25	미야모도무사시	Yoshikawa, Eiji	개마고원	1997	357
26	SF 수호지	Kurimoto, Kaoru	산호	1992	351
27	태엽감는 새	Murakami, Haruki	문학사상사	1994	332
28	폴라리 랩소디	이영도	황금가지	2000	326
29	(평설)열국지	유재주	김영사	2001	324
30	(조정래 대하소설)한강	조정래	해냄	2001	318

그리고 내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방향을 깊이 생각하며 인류와 더불어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는 의식이 다분한 작품들이다.

둘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대출통계에 의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 도서의 재미있는 독서경향 하나가 “김근우의 바람의 마도사”, “Mizuno, Ryo의

마계마인전”, “이우혁의 왜란 종결자, 퇴마록” 등의 판타지 소설과 무협지 소설이 문학도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문학도서 대출빈도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대학생들이 흥미위주의 책을 가까이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깊이 있는 사고의 부재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서울대학교 선정 교양필독서 200선과의 비교

책에 관한 특별기획을 실었던 신문을 비롯해 언론들의 선도적인 역할로 사회적으로 독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대학에서도 지나치게 전공교육에 치중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양필독서 동서 고전200선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전 200선 선정의 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간 우리의 학교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알맞은 교양 교육은 오히려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그 상당한 원인이 고전교육의 부재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고전 읽기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장차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여겨지는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선정, 나아가 우리나라 독서운동을 위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⁸⁾고 밝히고 있다.

동서고전 200선의 선정에 대한 절차는 200선의 목록작성에 대한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 고전에 대한 원론적 문제와 고전 읽기에 관계되는 실제적 문제 토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의 무수한 고전총서 목록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고전목록을 두루 수집하였으며 교내의 각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필독고전의 목록을 추천 받았다. 위와 같은 선정경위와 절차에 따라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은 다음과 같은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마련되었다. 고전 읽기의 중요성¹⁹⁾으로는 첫째, 고전은 시공을 초월한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은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둘째, 고전은 인간경

18) 반딧진 편저,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서울:가람기획, 1994.

19) 반딧진 편저,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서울:가람기획, 1994.

험의 다양한 폭과 깊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창조적 사유체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넷째, 고전과의 만남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가 지녀왔던 선형적 전체에 물음을 던져서 우리가 빠져 있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하고, 극에서 극에 이르는 다양한 인간유형과 이들이 보여주는 사고와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섯째, 지적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된다. 여섯째, 인간이 주어진 조건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구현하려는 체계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 등을 들 수 있다.

또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덕의 타락 및 규범의 와해를 예방하거나 바로잡는 길잡이로, 우리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형식 우위주의, 표피문화, 허위의식, 경박한 도피주의, 건전한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감각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상업주의와 같은 병리현상을 치유하는데 선정된 고전들이 진가를 발휘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선정 하였건만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도서목록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최다 대출된 도서 목록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는 6.5% 불과 하였다.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 200선”에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과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 순위 200선과의 공통 도서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대출횟수	
1	한국문학	林巨正	홍명희	사계절	2001	80
2	중국문학	삼국지	Lo, Kuan-chung	대산	1997	443
3		홍루몽	Ts'ao, Hsu eh-ch'n	민음사	1997	417
4		서유기	Wu, Ch'eng-en	동반인	1984	80
5	서양문학	백년동안의 고독	Garcia Marquez, Gabriel	문학사상사	1999	76
6		도스토예프스키전집	Dostoyevsky, Fyodor	열린책들	2000	418
7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Proust, Marcel	국일미디어	1998	90
8		릴케전집	Rilke, Rainer Maria	책세상	2000	74
9	동양철학	장자	Chuang-tzu	대현	1996	110
10	서양철학	플라톤의 국가	Plato	서광사	1997	59
11	사회과학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Braudel, Fernand	까치	1995	100
12		자본론	Mark, Karl	비봉	1989	81
13		꿈의 해석	Freud, Sigmund	열린책들	1997	73

서울대 선정 동서 고전 200선은 “수이전”을 비롯한 한국문학 26선, “시경”을 비롯한 동양문학 19선, “변신”을 비롯한 서양문학 55선, “대승기신론소”를 비롯한 동양철학 33선, “국가”를 비롯한 서양철학 30선, “삼국유사”를 비롯한 역사서 10선, “택리지”를 비롯한 사회과학 14선, “두 우주 구조에 대한 대화”를 비롯한 자연과학 6선, 기타 7선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중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5년간 최다 대출된 도서와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는 위의 <표 3>과 같다.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5년간 서울대 학부생들이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을 읽은 것은 전체 6.5%에 불과하다.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에서 구분한 분야별로 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문학 0.5%, 중국문학 1.5%, 서양문학 2%, 동양철학 0.5%, 서양철학 0.5%, 사회과학 1.5%, 자연과학 0%로 조사 분석되었다.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은 선정도서 목록으로 존재할 뿐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5.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의 도서와의 관계

다음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문화관광부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와, 또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과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하고 조사 분석해 보았지만 조직적인 대학생의 독서지도의 필요성이 적극 요망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의 성격은 매년 신간을 중심으로 범 국민적 독서증진을 목적으로 선정된 도서이건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의 성격은 범국민적인 독서증진을 목적으로 선정된 도서이므로 그 성격이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넓은 독자층의 지적수준을 고려한 추천도서의 성격으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거리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과 비슷한 성격으로 한 언론기관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창조적인 단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선”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선” 또한,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동아일보, 대학생들에게 권할 도서 100선”은 1990년대에 선정된 목록 리스트(List)였지만, 이 또한 지식사회기반의 중심인 대학생의 고전에 대한 독서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선”과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들과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선”과의 비교에서도 3종이 공통도서에 불과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표 4>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과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 순위 200선과의 공통 도서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대출횟수
1	한국현대사	한국역사연구회	폴빛	1996	250
2	프랑스대혁명사	Saboull, Albert	두레	1984	100
3	자본론	Mark, Karl	비봉출판사	1989	81

6. 베스트셀러와의 비교

본고에서는 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일반 베스트셀러와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개념정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이 제기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같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도 변했다.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 정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베르너 파울슈티히의 정의가 일반화되었다.²⁰⁾

그에 의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면 베스트셀러란 ① 주로 소설로, 짧은 기간에 여러 판을 찍을 정도로 특별히 성공한 책,²¹⁾ ② 어떤 기간에 최고의 매상을 올린 책²²⁾

20) W. Faulstich 저 ; 이임자 편역, “베스트셀러 연구를 위한 연구”, 베스트셀러의 진실, 서울 : 경인문화사, 1998.

으로 정의되어 있다.

두 가지 사전적 의미의 공통점은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린 책으로 이를 성공한 책”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에스카르피는 “베스트셀러는 성공의 가장 화려한 형태이다. 그것은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온 책으로 그 경력을 쌓으며 견실한 성공의 책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간다. 즉 그것은 스테디셀러를 말한다”고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의²³⁾를 하였다.

베스트셀러 한 권의 책에는 한 시대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사상 등이 집단적 총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그것은 한 시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담하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사회적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사회가 거대한 유기체적 생명력을 갖는 것이라면 베스트셀러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생명력을 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²⁴⁾

1998년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일반인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양귀자의 모순’,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등이 소설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재미있는 사실은 1998년부터 ‘드래곤 라자’, ‘왜란 종결자’등의 판타지 소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IMF체제하의 실질적 첫해인 1998년에 나타난 또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상반기에는 실직,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실용서적들이 대거 출판된 반면에 하반기에는 주로 구조조정·자유경제의 실천 금융관련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IMF 환란으로 인해 외국유학, 해외출장, 해외여행 등 전반적인 외국 관련 사항들이 축소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재인식시켜 주는 종류의 책들이 유난히 많이 출간되었는데 이 또한 갑자기 밀어닥친 IMF사태의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자기의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는 것이라는 본능적인 발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8년 이전에는 기존의 컴퓨터 입문서 및 활용서들이 상위권을 차지해

21) 1953년 “브록하우스 대사전”에서 처음으로 어원을 밝히고 있음.

22)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97.

23) Escarpit, R.; 임문영 역, “책의 혁명”, 서울:보성사, 1985.

24) 이정춘, “출판사회학”, 서울:타래, 1993.

왔으나 1998년부터는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독자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었다.

1999년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독서시장이 외국저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오토타케 히로타다의 오체 불만족’, ‘이케하라 마모루의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 한국인 비판’ 등 외국 작가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점과 ‘박완서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은희경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등 국내 여성 작가들이 쓴 작품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1999년에는 대형서점들을 제외하고는 지방이나 군, 소서점들의 매출 감소, 소수의 베스트 셀러 작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작가들은 전업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문화계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 컴퓨터, 경제, 경영 어학 관련 서적 등 실용서적과 고급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 예술, 문화 관련 서적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사이버서점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들 수 있겠다.

2000년도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소설부문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였으며 그 부문에서는 ‘조창인의 가시고기’,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 ‘조엔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등 대중소설과 판타지 소설이 강세를 보였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 등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등 TV 강좌에 힘입어 딱딱하고 학술적인 인문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시리즈도 경제·경영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체면을 살려 주기도 했다.

외국어 분야에서는 역설적인 책제목과 기존의 영어 학습서와는 분명히 차별화 된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선 ‘정찬용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가 강세를 보였으며 ‘5차원의 영어 학습법’, ‘외국어 나도 잘 할 수 있다’등 영어공부 방법론을 담은 책들이 인기를 누렸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수학의 해를 맞아 수학과 관련한 교양서들이 베스트셀러 군에 대거 진입했고, 편집과 구어체로 정리하여 읽는 재미를 극대화한 에듀테인먼트 책(Edutainment Book)인 ‘샤르탄 포키스트의 수학

이 수군수군’, ‘물리가 물렁물렁’, ‘화학이 화끈화끈’등의 시리즈도 인기를 누렸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퇴조와 전집물 시장이 무너지고 반면에 아동도서 분야의 시장이 날로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이원복의 새 먼 나라 이웃나라’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작품성과 재미를 두루 갖춘 창작동화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1-2002년도의 베스트셀러 동향을 살펴보면,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아 헤매는 생쥐의 짧은 우화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펜스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많은 약진을 보였다.

이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소설부분에서는 ‘최인호의 상도’,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 ‘조창인의 가시고기’ 세계적으로도 경이적인 기록을 지속하고 있는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의 인기는 계속되었다.

2002년 소설부문에서도 2001년과 경향은 비슷하지만 MBC「느낌표」를 통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묘안과 방법 소개로 책을 읽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는 데에 힘을 입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위기철의 아홉살 인생’,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이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외국소설로서는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이 뮤지컬과 함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도 경제·경영서로서 자리매김은 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냉각으로 인해 주식 관련서의 판매부진이 가장 눈에 띄었으며, 벤처산업과 IT (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침체로 인한 컴퓨터 관련도서의 판매 또한 부진했다.

그러나 CEO (Chief Executive Office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외국의 대표적인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잭 웰치’와 국내의 대표적인 ‘안철수’의 자서전이 인기를 누렸다.

2002년의 경제 경영 부문에서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시리즈 인기는 계속되었으며, ‘허브코헨의 협상의 법칙’,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의 단순하게 살아라’가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계발 분야의 새로운 고전으로 부상되었다.

외국어 분야에서는 ‘정찬용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가 지난해에 이어서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를 굳혔으며, 외국어 분야에서는 ‘오정혜 외의 토익점수 마구 올

려주는 토익’, ‘김대균의 TOEIC 답이 보인다’가 취직이나 유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폭으로 토익 서적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태의 여파로 테러, 첨단무기, 미국의 대외정책, 이슬람 종교와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서적들도 특수성을 누렸다.

또한 교양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로빈슨’시리즈, 동물사진과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실은 ‘블루 데이 북’, 네티즌 편당 방식으로 제작된 ‘너 그거 아니?’는 엉뚱한 궁금증을 풀어준 기발한 책이라는 네티즌들의 입소문만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진입해 다양한 실험 형식으로 기획, 편집된 책들이 인기를 누렸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오락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표방한 MBC 「느낌표」가 ‘책을 읽자’는 코너를 통해 책을 읽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영상시대에도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묘안과 다양한 방법들을 코믹하게 소개, 이를 통한 첫 추천도서인 ‘김중미의 팽이부리 말 아이들’이 한달이라는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상위에 진입해 방송매체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2002년에도 베스트셀러 중 MBC「느낌표」선정도서가 순위에 진입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소설분야에서 상위에 진입한 ‘위기철의 아홉 살 인생’이 「느낌표」선정도서이며, 각종 문예지, 소설집 발문 등으로 발표했던 생활사, 문단과 문학, 가족사, 시작메모, 아포리즘 등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산문들을 모은 산문집으로 ‘유흥주의 그러나 나는 살아갈리라’, 인문과학 분야로서 ‘김구의 백범일지’, 경북 봉화에서 농사지며 홀로 자연에 순응한 삶을 살아가는 저자가 지인들과 9년간 주고받은 편지글인 ‘전우익의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등이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MBC! 「느낌표」코너에 선정된 도서로서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한 도서들이다.

이상과 같이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과 ‘교보문고의 연간 베스트셀러 집계’를 통한 분석방법으로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을 조사해 본 것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은 대학생의 독서경향에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특히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IMF사태와 격심한 불황은 독서 인구를 격감시키기도 하였고, 산업적인 기반이 채 준비도 되기 전에 격랑처럼 몰아닥친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입문서들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로 1998년부터 ‘독서 새 물결 운동’ 2차 사

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독서환경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일신으로 TV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진흥책에 힘입어 독서율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은 위와 같이 사회적인 독서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거대한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보급되는데, 이처럼 넘쳐나는 지식정보를 지혜롭게 취사선택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다.

독서는 문화, 정보, 지식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올바른 독서문화의 자리매김 없이 지식기반 사회는 구축되지 않는다.

이처럼 중요한 독서는 사회적인 변화 요인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요인이므로 독서 장려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사회적 독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본다.

다음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대출된 도서 200선과 5년간 매년 ‘대한출판문화 협회의 한국출판 연감’과 ‘교보문고의 5년간 베스트셀러 집계’에 의해 선정된 도서와 조사·분석하여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들의 목록이다.

<표 5> 일반 베스트셀러와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 순위 200선과의 공통 도서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연도	대출횟수
1	왜란종결자	이우혁	들녘	1998	540
2	새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1998	218
3	상도	최인호	여백	2000	167
4	상실의 시대	Murakami, Haruki	문학사상사	1995	93
5	노자와 21세기	김용옥	통나무	2000	73
6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신경숙	문학과 지성사	1999	66

위의 <표 5>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 출판 연감’과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집계’에 의한 일반 베스트셀러와 조사·분석한 결과 공동으로 선정된 도서들의 리스트 (List)이다.

일반 베스트셀러와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목록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0.7%에 불과하다.

<표 5>를 보면 문학분야 중 소설에 대한 주제별 선호도가 뚜렷하다. 대학생의 최고의 주제별 선호도는 문학 분야의 소설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일반 베스트셀러의 조사·분석 결과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및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선’의 도서와의 관계에서 조사·분석한 결과와 같이 대학생의 독서경향은 최근의 베스트셀러와는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또 일반 베스트셀러와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와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분석해 보면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와 최인호의 ‘상도’는 MBC 창사 40주년 기념 드라마로 상영돼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이우혁의 ‘왜란종결자’는 판타지 소설이 PC 통신과 친숙한 세대의 인기도서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는 TV 강좌에 힘입어 딱딱하고 학술적인 인문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원복의 ‘새 먼 나라 이웃나라’는 1998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빈도 200선 선정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정된 도서로서 그 비결은 흥미롭고 알기 쉬운 친근한 장르를 사용한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과 ‘교보문고의 연간 베스트셀러 집계’로 본 일반 베스트셀러와 5년간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에 대한 통계로 분석해 본 결과 베스트셀러에 대한 대학생의 반응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결론

대학생에게 독서가 단순한 취미일 수는 없다. 급변하는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의사소통의 방법 및 도구가 다양해 졌지만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방법은 독서이다.

독서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넓고 풍부한 생활경험을 흡수하고 확장 할 수 있으며, 폭넓고 유능한 인간으로서 자신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아 발견과 형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활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독서 없는 대학생활을 상상하는 것은 심장이 없는 인간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본 논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분석·조사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독서 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출통계 데이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최다 대출 빈도를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 도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통한 한국 대학생의 독서경향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5년간 최다 대출통계를 기록하는 단행본 도서를 매년 200권을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도서들을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이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된 통계를 토대로 대학생의 독서경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여러 정평 있는 기관에서 선정된 도서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최다 대출 빈도를 가진 도서들을 조사·분석해 본 결과 1998년에는 최다 대출도서 200책 중 문학도서는 116책으로 58%, 교양도서는 200책 중 42책으로 21%, 실용/취미도서는 200책 중 16책으로 8%, 만화/무협지는 200책 중 26책인 13%였다.

1999년에는 최다 대출도서 200책 중 문학도서는 90책으로 45%, 교양도서는 200책 중 94책으로 27%, 실용/취미도서는 200책 중 22책으로 11%, 만화/무협지는 200책 중 34책으로 17%였다.

2000년에는 최다 대출 도서 200책 중 문학도서 92책으로 46%, 교양도서는 200책 중 62책으로 31%, 실용/취미도서는 200책 중 6책으로 3%, 만화/무협지는 200책 중 42책으로 21%였다.

2001년에는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 빈도 200책 중 문학도서는 82책으로 41%, 교양도서는 200책 중 70책으로 35%, 실용/취미도서는 200책 중 6책으로 3%, 만화/무협지는 200책 중 42책으로 21%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최다 대출 빈도 200책 중 문학도서는 80책으로 40%, 교양도서는 200책 중 68책으로 34%, 실용/취미도서는 200책 중 8책으로 4%, 만화/무협지는 200책 중 42책인 21%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소설부문의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이우혁의 퇴마록’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드래곤 라자’, ‘왜란 종결자’ 등의 판타지 소설의 부각으로 만화/무협지에 대한 관심이 1998년에는 13%이던 것이 2001-2002년도에는 21%를 차지하였다.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별 분야는 문학분야였다.

연구결과 조사·분석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 경향은 세계의 명작들 즉 고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볍고 감성적인 무협지, 판타지 소설에 대한 관심집중 등 대학생의 독서경향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대학생의 독서경향에 따른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독서진흥을 위한 대책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5년간 최다 대출된 도서를 조사해 본 결과 대학생의 독서경향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내용은 전공도서, 학습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보다는 교양도서나, 일회적이고 흥미 위주의 독서 활동으로 그칠 수 있는 만화 및 무협지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이런 양상은 요즘 대학생들이 인내심이 없고 지적인 긴장을 요하지 않는, 쉬운 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베스트셀러 및 고전 교양도서의 반응은 낮았으며 사회과학과 철학부문인 교양도서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를 연구하는 실용적 도서인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도의 현저한 감소현상은 학문의 균형적인 연구 및 수준이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에게 가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적은 문학서이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체계적인 독서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사람마다 책에 관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다, 좋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화 및 무협지에 대한 증가추세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인 긴장을 요하지 않고 일회적이며 흥미위주의 도서로 지성의 산실인 대학도서관에서는 구입부터 심사숙고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도서관 정책적으로도 양질의 도서가 입수되어 대학생 및 연구자들의 학습활동 및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공을 초월한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동·서양의 문화를 다양하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고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교양 필독서로 선정된 동·서고전 필독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서지도가 행해 질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독후감 모집 행사 등 독서진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학교육 수준에 적절한 사고의 소재를 담고 있는 교양도서의 점차적인 증가는 환영할 만한 것이나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한다든가 과학의 기본 원리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침체현상으로 독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학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용법을 알리고 도서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의 대폭 확대·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설 확충 등 적극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진흥책이 수립, 집행되지 않고는 독서진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학 당국은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곳이 도서관임을 인식해야한다.

여섯째, 대학생의 올바른 독서를 위해 교수와 학생간의 보다 많은 의견교환이 요구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5년간 최다 대출된 도서를 조사해 본 결과 독서진흥을 위한 대책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전체 학부생의 만화·무협지의 강세 현상은 독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대와 같이 출판물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독서물의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교양과 전공학문의 수행을 위해서나 원만하고 폭 넓은 인간성 형성을 위해서도 편중된 독서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집단인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서평의 활성화, 다양한 도서목록의 구비, 도서관 수서정책에 의한 장서의 종수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의 기본 인프라인 출판계 또한 지식기반사회

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출판해야 됨을 인식해야 된다.

다양하지 못한 출판물의 생산은 지식의 생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질 좋은 출판물을 제대로 생산·배포해야 한다.

셋째, 대학에서의 독서교육, 대중매체나 출판전문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교육이 요구된다.

방송사의 독서프로그램 확대가 방법일 수 있다.

인쇄매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반면 영상매체는 신체의 오관을 통해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생각할 겨를 없이 이미지를 수용하게끔 만든다.

인쇄매체는 이성적 인간형을, 영상매체는 감성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매체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이상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방송사의 독서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독서진흥을 위한 위성방송을 신설하여 활용하는 것도 모색해 볼 만하다.

넷째, 체계적인 독서진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독서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서진흥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판은 모든 학문적 결과를 집대성하고 문화적 현상을 정리해 주며, 정보를 체계화하고 전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수단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크게 이바지할 매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제도권 교육에서 마저 올바른 독서교육을 외면한다거나 정책적 배려에 있어서 홀대를 받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문화 인프라로서 출판 산업은 저급한 상품을 만드는 공해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상업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출판계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도서관을 소비자로 보아 도서관을 향해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불멘소리를 하였고, 반대로 도서관은 출판계를 향해 “좋은 책을 내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런 미약한 유대 관계에 바탕을 두었던 출판계와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대출 통계에 의한 최다 대출도서로서 대학생의 독서 경향을 조사·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저작—출판—독서”라는 인간 최고의 정신 활동 흐름 가운데 출판과 독서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출판 활동과 독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기능에 있어서 서점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출판계와의 관계는 ‘지식의 배분을 증가시키는 공통의 목표’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각종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은 ①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② 독서 자료 선택의 잘못으로 일어나기 쉬운 독서 흥미의 편향을 막기 위해 ③ 독해력과 감상력의 부족으로 인한 독서 효과의 둔화를 막기 위해 ④ 독서한 내용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독서는 문화, 정보, 지식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원천이다.

올바른 독서문화의 자리매김 없이는 지식기반 사회가 건설되지 않는다. 아무리 테크놀러지가 발달하여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책읽기를 통해 키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회,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인프라 구축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리처드 라일리 미국 교육부 장관의 ‘하루 30분 책읽기의 교육 혁명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 기반 사회는 바로 책읽기를 통해 가능하다. 새 천년에는 지식 기반 사회를 목청 높여 외치기보다는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다량의 정보가 신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양의 정보를 선택, 분석,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재생산, 제창 출하는 능력은 책읽기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특히, 21세기에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창의력과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방법 또한 책 읽기이다.

결국,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가발전도 요원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 (주)아이네크, “SOLARS 4.0 대출·장서 관리 시스템”, 서울:아이네크, 2001.
- A. J, Harris,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New York:Longmans & Green, 1956, p.153.
- Escarpit, R. ; 임문영 역, “책의 혁명”, 서울:보성사, 1985.
- Gelfand, M. 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68.
- Strang, Ruth McCallough, Constance, M. and Traxler Arthur E., “Problems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 New York:McGraw-Hill, 1955, p.287.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國立大學圖書館報”, 第17-20輯, 1999-2001.
- 김병원, “독서론”, 서울:배영사, 1978, p.7.
- 김선남, “독서문화와 베스트셀러”, 서울:일진사, 2002.
- 김용철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대구:태일사, 2002.
- 남태우 역,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도서관협회, 2000.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98-2002.
- 문화관광부 편, “국민 독서실태 조사 1998-2002년”, 서울:문화관광부, 1998-2002.
- 박정길, “圖書館·文獻利用法, 부산:경성대학교 출판부, 1995.
- 반덕진 편저,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서울:가람기획, 1994.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학술정보시스템”, 1994.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전산화 국제세미나”, 1991.
- 小野泰博 等著, “圖書館學通論”, 現代圖書館學講座 1, 東京, 東京書籍, 1983.
- 안춘근, “한국출판 문화론”, 서울:범우사, 1981.
- 오인환 옮김, “독서의 생활화”, 서울:구미무역, 1982.
- 유재천, “청소년 독서 환경실태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출판연구소, 1987.
-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태일사, 1999.
- 이기성, “e-book과 한글폰트”, 서울:동일출판사, 2000.
- 이기성, “전자출판과 디스크책에 관한 연구”, 출판학연구, 서울:범우사, 1993.
- 이기성, “전자출판-4”, 서울:장왕사, 2001.
- 이정춘, “출판사회학”, 서울:타래, 1993.